



△ '아이사랑 행복카드' 시행 1주년 기념식이 3월 12일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아이사랑 행복카드 “성과 좋네”

3400여 다자녀가정 가입...72억 매출기록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역할 '한 몫'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사랑 행복카드' 사업이 시행 1년을 넘기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우대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민·산·관 공동협력 프로그램으로 '아이사랑 행복카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내 3400여 다자녀 가정이 가입해 연간 72억30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또 카드 매출금액의 0.2%가 발전기금으로 적립돼 현

제 1446만원이 조성됐다. 발전기금은 다자녀 가정 우대사업에 재투자된다.

제주도는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 '아이사랑 행복카드'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육·육아용품·마트 등 참여업체를 이용할 경우 우대 할인되는 것을 비롯해 카드연회비 평생면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농협과 제주은행에서 대출과 예금 시 우대금리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참여업체에는 카드 매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0.2%

할인, 참여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등을 부착해 주고 있다.

제주도는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KCTV 방송 이용료 30% 할인, 절물과 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료 50% 감면, 자동차 취득·등록세 50% 감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등을 시행, 우대 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만식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공영주차장, 관광지, 박물관 등 공공분야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시책을 먼저 추진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면서 “제주지역 실정을 반영한 출산장려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확대 시행

11일 이후 신축 공공건물 등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

오는 11일 이후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물에는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시행 1년을 맞아 새로운 사항이 발효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고용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된 장애인을 위해 시설정비, 보조기구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국·공·사립 특수학교와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경우에도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시설정비와 교육보조인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오는 11일 이후 신·증·개축되는 모든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복지·문화·예술시설 포함), 공동주택 등은 출입구 정비,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한다.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웹사이트 및 간행물 등 비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도 실시해야 한다.

이들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 진정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도내 공공기관 349곳과 종합병원 6곳, 300명 이상 사업장 6곳, 사회복지시설 119곳에 장애인원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토록 안내했다.

또 2억원을 들여 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리더기(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구축하고, 도내 장애인복지관과 시각장애인협회에 보이스아이리더기 56대를 보급했다.

제주도청 민원실에서는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산모도우미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 새내기 엄마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출산 1개월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하면 된다.

4만~9만원을 내면 필요한 시기에 2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또는 장애가 있거나 결혼이민자가정, 3자녀 이상 가정 등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제주재활전문센터 첫 삽

시설 탐방·제주사니어클럽

■ 사회복지소식..... 4·5면

청문동프로그램·소식마당

수확동영상무료제작

■ 오피니언 6면

칼럼·기고

■ 특집 7면

사회복지중사자처우개선 정책토론회

탐 초·중·고 전문학원

학부모님들이 교육효과에 100% 놀랍니다.

(부설교육) 대한민국 최초의 영어몰입교육

차일드 유 영어교실



원장 고 경 남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 수석부회장
온누리봉사회 초대 회장 / 손뜻모아봉사회 2대 회장

제주시 화북1동 1239-6

연락처. 722-3553, 721-8553, 017-691-3553



제주재활전문센터 신축 본격화

380억원 들여 옛서귀여중부지에 건립
2011년 개원...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맞춤형 종합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제주재활전문센터가 3월 14일 기공식(사진)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서귀포시 서귀동 옛 서귀여자중학교 5958㎡ 부지에 들어서는 재활전문센터는 총 사업비 380억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며, 재활치료실과 특수치료실, 입원실 등을 갖추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단계로 27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5층(연면적 1만7339㎡) 공사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사업비를 확보해 오는 2011년 2월 개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재활전문센터에 첨단 의료장비와 신 기술을 도입하고, 우수 의료진과 전문 경영인을 확보해 기존 병원과 차별화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대체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오감을 자극해 치료할 수 있는 치유환경을 조성, 서귀포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 재활병원의 경영



실패와 운영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적의 운영방안을 수립해 개원 이전에 최상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수놓음 이야기 찾아요”

“어려운 이웃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수놓음 이야기를 찾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미담이나 수법사례를 발굴, 홍보해 경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수놓음 이야기’ 사례 발굴에 나선다.

수놓음 이야기 대상은 어려운 여건에도 혼사 사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사례를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남모르게 꾸준히 기부하는 사례, 주변에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천할 만한 선행 등이다.

제주도는 발굴된 ‘아름다운 수놓음 이야기’를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사례집을 발간, 각급 기관·단체, 읍·면·동 민원실, 마을회관 등에 배포해 어려운 경제위기시대에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동거부부 11쌍 합동결혼식 “행복하세요”

제주시와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양임생)는 3월 27일 퍼시픽호텔 예식장에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 11쌍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치렀다.(사진)

이날 합동결혼식을 위해 퍼시픽호텔 황시형 대표는 예식장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결혼식에 필요한 턱시도와 드레스,

신랑양복, 신부한복, 사진촬영 등도 무료로 지원됐다.

여성단체와 봉사단체에서도 이불, 화장품세트, 냄비세트 등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다.

주례는 고민수 대한노인회 제주시회장이 맡았으며, 도립예술단의 금관5중주 연주와 도립화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이 어우러진 축하무대도 마련됐다.

중증장애인생산물품시설 4곳 지정

일배움터와 춘강장애인근로센터 등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물품시설로 지정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 일배움터와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부설 길직업재활센터, 춘강장애인근로센터, 평화의 마을 등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물품시설로 지정을 받았다.

중증장애인생산물품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생산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가운데 중증장애인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생산 및 서비스 과정에 걸리는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야 한다.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물품을 판매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물품시설로 지정을 받아야 우선구매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간도 중증장애인생산물품시설로 지정된 곳의 제품을 구매해야만 우선구매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숨은 일꾼과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알려주시면 적극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노인 66%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도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4만2300명으로, 지난해 12월 3만4741명에 비해 7559명이 늘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66%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시 추자면(92.0%)과 우도면(91.1%)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시 삼도1동으로 45.7%에 머물렀다.

제주시 구좌읍은 지난해 12월 59.4%에서 77.0%로 17.6%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급률이 증가한 것은 지난 1월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

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를 도입해 놓여준 5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대도시 1억800만원을 재산 소득환산에서 제외하고, 금융재산공제액도 2000만원으로 완화해 수급대상자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108만8000원 이하(부부가구), 68만원 이하(단독가구)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을 경우에는 2억6112만원 이하(부부가구), 1억6320만원 이하(단독가구)이면 수급대상자가 된다.

소외계층에 ‘사랑나눔 행복카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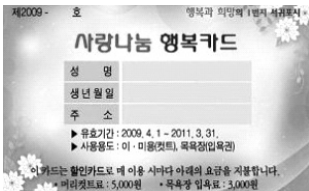
미용실 등 무료·할인 이용

서귀포시는 소외계층이 이·미용실과 목욕업소를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랑나눔 행복카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사전에 관련 위생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자발적인 참여업소를 신청받아 이용업 31곳, 미용업 25곳, 목욕업 24곳 등 모두 80개 업소를 선정했다.

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의 아동,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1445명을 확정, ‘사랑나눔 행복카드(사진)’를 배부했다.

소년·소녀가장과 조손가



정의 아동 등 36명에게는 이·미용과 목욕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연노랑색의 카드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409명에게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연파랑색의 카드가 각각 발급됐다. 이 카드는 내년 3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참여업소 출입구에는 사랑나눔 실천업소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됐다.

서귀포시는 참여업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업소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시교육청성안복지재단 조손가정 학생지원 협약

제주시교육청(교육장 김상호)과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이사장 고치웅)이 3월 17일 제주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조손가정 학생들의 교육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제주시교육청은 교육복지대상 학교의 조손가정 학생을 추천 선정



하고, 성안복지재단은 조손가정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2011년 2월까지 2년간 총 2억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협의회 2009년 2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440,000	440,000
난치병환아후원	50,000	0
자원봉사후원	1,425,000	1,425,000
복지사업후원	1,585,000	331,61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17)시니어클럽



아름다운노후! 일하는노후! 행복한노후!

맞춤형 교육 통한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창출주력
작년 584명에 일자리... '관광도우미' 복지부 표창도

‘노인 일자리 창출전담기관’인 제주시니어클럽은 도내 60세 이상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적절한 일자리와 역할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보내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시니어클럽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시장형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시니어손맛집, 한울한뫼, 천연염색, 하르방과자, 희망공동작업장, 은모닝꽃모아(화환재사용방지사업), 시니어빨래방, 제주잡살이사업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저렴한 금액으로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제주한라대학 인근에 위치한 ‘시니어손맛집’은 줄을 서야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인력파견형사업에는 시니어간병사업단, 실버인력뱅크, 주유원인력뱅크, 시험감독관파견단 등이 있다. 이 중 시니어간병인사업단은 시니어클럽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도내 병원 및 가정에 파견돼 활동하면서 매우 활성화돼 있다.

복지형사업으로는 노(老)노(老)케어, 주거환경개선단, 청소년지킴이사업단이 운영된다. 청소년지킴이 사업은 2004년 제주에서 처음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 중 하나이다. 2006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교육형사업에는 시니어교육강사와 시니어관광도우미가 있다. 제주지역 특성화사업인 시니어관광도우미는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 보건

햇살이 아름답고 봄기운을 가득 머금은 바람이 불던 날,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제주시니어클럽(관장 황영애)을 찾았다. 2004년 4월 문을 연 제주시니어클럽은 제주시 노형동 원불교 신제주교당 내에 위치해 있다.

복지가족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박부영 실장은 “현재 4개 분야 17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21개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어르신 의식개선 및 직무교육을 통한 인력풀(pool)제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은빛마음학교’를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제주지역은 산업구조가 농업과 관광서비스 산업에 편중돼 있어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면서 “더욱이 노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등 사회의 편견들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584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됐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니어클럽은 노인인력 고용을 원하거나 일감을 제공할 기업 또는 기관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745-3998~9.

〈현경애 명예기자〉



△지난해 청소년 문화존(zone) 행사 모습.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맘껏 쏟아내요”

제주도 청소년 문화존행사 11일 스타트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들의 잠재역량 개발과 재능을 한껏 발휘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2009 청소년 문화존(zone)’ 행사를 오는 11일 문화존 선포식을 시작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2007년 시작된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청소년 단체(시설) 및 학교 동아리회원 등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평소 재능과 소질을 한껏 선보이며 즐길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프로그램이다.

문화존(zone)행사는 매주 토요일 제주시 동문로터리 산지천문화예술마당에서 시민들과 관광객과 청소년들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로 진행된다.

각급 청소년동아리 단체 및 학교동아리에서 신청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고루 선보일 수 있도록 연중 상시존(zone) 형태로 연말까지 운영된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는 공연마당으로 학교나 청소년단체들이 준비한 합창, 기악연주, 보컬, 힙합댄스, 마술, 수화, 풍물놀이, 판소리, 사물놀이, 택견, 난타 등 공연 중심 프로그램이 총 7회에 걸쳐 운영된다.

둘째주 토요일에는 체험마당으로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동아리들이 과학, 미술, 애니메이션,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마술 등 체험 프로그램이 총 7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셋째 토요일에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놀이마당으로 전래놀이·게임 및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선불 증정 등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운영 프로그램별 성격에 맞게 개최장소를 제주시 해변공연장, 탐동 푸른쉼터 등 월 1회 장소를 색다르게 개최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결혼이주여성 분만비 등 지원

서귀포시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산전 검진비와 분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임신부로,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신을 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이 밖에도 한글교실, 밑받침만들기, 생활요리, 부부교육, 배우자교육 등 결혼이주여성들이 제주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사물인식이 어려운 중증시각장애인(1~3급)을 대상으로 점자 형태로 만들어진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4급 이하 시각장애인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주민등록증이 다양한 종류의 카드와 형태가 비슷해 구분이 어려워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점자 주민등록증은 투명 점자스타커를 제작해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는 형태다.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가 싹~

서부종합복지관 '청문동 프로젝트' 눈길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집에서 TV를 보거나 혹은 PC방, 노래방에서 비생산적으로 보내며 마땅한 오락거리를 찾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다.

이처럼 문화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동아리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3월 28일 오후 서부사회종합복지관 4층 강당.

따뜻한 봄기운을 받으며 20여명의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강사의 지도 아래 드럼과 키보드, 기타 등 악기 연습에 한창이다.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김은이양(한림여중 3년)은 “노래방 반주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과 친구들의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것은 다르다”며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빨리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했

으면 좋겠다”고 수줍게 말했다.

기타의 선율에 흠뻑 빠진 김수현양(한림여중 3년)은 “평소 때 같았으면 집에서 따분하게 TV를 보고 있었을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기타를 배워 재미있고 기타를 치면 스트레스가 풀려 공부도 더 잘 된다”고 말했다.

옆에서 베이스를 연습하고 있던 김새봄양(한림여중 3년)은 “여러 가지 악기들을 직접 만져 볼 수 있어서 좋고 연습을 하면서 친구들과 공감대가 생겨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종범)이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는 ‘청·문·동(청소년 문화 동아리)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청·문·동 프로젝트는 불건전한 문화에 빠질 수 있는 지역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한 ‘청·문·동 프로젝트’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해방구를 찾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된다. 금요일에는 댄스 동아리가, 토요일에는 음악 동아리가 운영된다.

김승제 사회복지사는 “아이들이 평일에도 매일 같이 나와 직접 연습할 곡을 고르는 등 프로그램에 대단히 흥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모임을 구성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동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혼자 사는 노인 가정을 찾아 청소와 빨래를 하는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람있게 보내고 있다.

〈양정선 명예기자〉



송죽원, 밸리댄스 '삼매경'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시설에 입소한 여성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밸리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은 물론 전문화된 특기생활을 발굴해 자기만족도를 높여 성취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송죽원은 기대하고 있다.

송죽원 관계자는 “비장애인과 함께 완벽한 밸리댄스를 몸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내년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퓨전 밸리댄스에서 한 단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해 무료공연을 갖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식/마/당

2009년도 경로당 노인교실 개강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복)은 3월 9일 도내 367개 경로당 가운데 132곳을 최종 선정해 건강체조와 노래교실, 보치아교실, 웃음치료 등 노인교실을 개강했다.

지난해 69곳에서 올해 63곳을 추가한 제주도노인복지회관은 오는 10월말까지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 지원한다.

신원복지재단 8주년 기념식



사회복지법인 신원복지재단(이사장 정석왕)은 3월 13일 제주케어하우스에서 신원복지재단 창립 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8년간 신원복지재단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동영상 상영 및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도자원봉사센터-직업훈련협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와 제주직업훈련협의회(회장 황인호)는 3월 16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중회의실에서 상호간의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문인력 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가의집, 지역사회 정화활동



아가의집(원장 고용성) 생활인들은 3월 21일 한국마사회목장사업처 직원들과 함께 함덕파출소에서 조천읍 대흘리까지 약 5km 구간에 대해 지역사회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아가의집은 지적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예비사회복지사 교육 실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3월 19일 제주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150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복지사 교육 및 가정위탁보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앞으로 사회복지에 진출할 전문 인력양성 및 잠재된 인적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아동복지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중요성을 알렸다.

아라복지관 꽃마을 가꾸기 행사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두승)은 3월 10일 복지관 앞 화단 및 아라주공아파트 화단에 150그루의 꽃나무를 심는 아라주공아파트 꽃마을 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아라주공관리사무소, 아라어린이집, 아라복지관 경로대학 학생 등 5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했다.



가롤로의집 직능검사 실시

가롤로의집은 2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해 지난해 입소한 생활인 8명을 대상으로 직능검사를 실시했다.

가롤로의집은 생활인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이 적합한지, 직업은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직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독거노인 등에 물품 후원

우리은행 제주지점(지점장 김인규) 자원봉사팀은 3월 14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희경)과 연계해 구좌읍 관내 혼자 사는 노인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가정을 방문, 쌀과 돼지고기 등 물품을 전달했다.

또 일부 자원봉사자는 자녀들을 데리고 와 함께 집안청소와 주변 환경정비 등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수화 동영상 무료로 제작해 드려요”

도농아복지관, 농아에 효율적 소식 전달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박전해)이 유관기관에 홍보용 수화 동영상을 무료로 제작해 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농아복지관은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미디어분야의 도구를 활용해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홍보 영상(행사 광고용 팝업 등)을 제작,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농아복지관은 이 사업이 지역사회와의 정보망 연계 및 정보지원체계구축 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농아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망을 형성,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신원복지재단 창립 8주년 홍보 동영상에 수화를 삽입한 영상을 제작한 장은혜 사회복지사는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해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힘이 많이 들었다”며 “그래픽 제작 등 생소한 분야가 너무 많아 관련 서적을 들춰다 보면 아근은 기본이고 밤을 샌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신원복지재단에서 우리가 직접 제



△제주도농아복지관이 올해 제작한 신원복지재단 수화 동영상.

작한 수화 동영상을 보고 흡족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했다.

제주도농아복지관은 지속적으로 수화를 넣은 영상물을 제작, 농아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소식을 제공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유대감 형성에 한 몫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농아복지관은 농아가 직접 참여하는 제주농아자치정보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수화교육프로그램 ‘수화로 Talk talk’, 감성을 따뜻하게 해주는 ‘수화로 보는 TV동화 행복한 세상’, 자체 제작영상 ‘농아인 길찾기’ 등이 방송되고 있다.

〈이명자 명예기자〉

장애아 자녀 가정에 관심을...

시각장애인 석진우목사자전거 국토횡단 나서

장애아와 장애아 가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 목사가 희망의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

시각장애 2급인 석진우 목사(40·고산중앙교회·사진)는 오는 6일 서귀포시청을 출발해 부산→대구→김천→대전→천안을 거쳐 서울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자전거로 국토횡단을 한다.

석 목사는 ‘장애아 자녀 가정에 희망과 웃음이 넘치는 그 날까지...’라는 부제를 달고 도시를 순회하면서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준비한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석 목사는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과 식구들의 마음의 그늘을 사회에 알리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



인의 인식개선과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국토횡단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전거 투어로 널리 알려진 석 목사는 2006년에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횡단을 했으며, 지난해엔 미국 대륙 횡단에도 참가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 다양한 음식 맛보세요”

다문화가정센터, 왕벚꽃축제서 음식점 운영

제주다문화가정센터는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일원에서 열리는 제주왕벚꽃축제와 유채꽃잔치에서 다문화 음식점을 운영한다.

이번 축제에서 다문화가정센터는 중국식 꼬치구이, 베트남 쌀국수, 필리핀 감바스, 일본 오꼬노미야끼, 우즈벡 보르시 등 다양한

음식을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수익금은 다문화사업기금으로 사용된다.

다문화가정센터 관계자는 “한국에 없는 식재료들을 직접 모국에서 가져와 만든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 볼 수 있다”면서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원

사회복지법인 삼다(대표이사 양예홍)는 3월 26일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청년회의소회관 1층에 서귀포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개원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서귀포 지역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보행교육, 점자교육 등의 재활프로그램과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족구성원의 원활한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눈높이 맞추기 음악치료

창암재활원은 뇌병변 장애, 자폐성 및 지적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우리아이 눈높이 맞추기 음악치료’를 지난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주 1회(토요일) 운영하고 있다.

창암재활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들의 오감각기능을 향상시켜 퇴행을 예방하고, 장애아동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동중·도사회복지協 교육공동체 구축 협약

제주동중학교(교장 김태형)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3월 19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복지대상학생들에 대한 복지교육 지원과 제주동중학교 인재개발 양성 및 평생학습 지원 등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물품 전달식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와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은 3월 3일 다음글로벌미디어센터에서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사연은 ▲보육원 학생의 외국어공부를 위한 전자사전 ▲형편이 어려운 모자가정 어린이의 교육을 위한 컴퓨터 ▲외조부모가 키우는 어린 자매의 교육을 위한 컴퓨터 ▲병석의 어머니와 추억을 담고 싶어하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가정폭력 피해해터의 어린이와 어머니를 위한 의류 등이다.

지난해 3월부터 제주 사랑의



열매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은 네티즌이 웹사이트(http://jeju.daum.net/daumharbang)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사연을 올리면 제주 사랑의 열매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공동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네티즌 참여 지역공헌 사업이다.

“봉사로 다문화 청소년과 소통해요”

18·25일 세계 자원봉사자의날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청 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철수)는 오는 18일과 25일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운영한다.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GYSD·Global Youth Service Day)은 매년 4월 정해진 주말에 열리는 행사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알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행사이다. 올해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

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벌인다.

18일 첫째날은 제주시주민센터와 연계해 다문화이해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도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현지인들로부터 각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

25일 둘째날에는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봉사활동을 펼친다.

칼럼

복지예산 횡령과 '청렴제주'



한 영 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휘고 굽어 거동조차 제대로 못하는 할머니, 몸이 불편하거나 말을 못하는 장애인, 하루 한 끼를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취약계층, 몇 천원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힘든 수레를 끌며 폐휴지를 쪼는 노인, 라면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소년소녀가장 등... 이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생계비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전국 곳곳서 나쁜 공무원 적발

그런데 이들에게는 절박함만큼이나 필요로 하는 복지예산이 공무원 뒷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것도 이들의 딱한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복지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빼돌려졌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말이다. 아니 이들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자괴감과

저 든다.

최근 공무원 복지예산 횡령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마치 감자 줄기처럼 줄줄이 떨어져 나왔다. 이를 보고받은 대통령까지 격노했다고 한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부산시 공무원 3명이 복지예산 2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것을 시작으로 2개월 새 7개 지역에서 40억원에 가까운 복지예산이 공무원 뒷주머니로 빼돌려진 것이다.

서울시 양천구 공무원이 횡령한 금액은 장애인수당 등 무려 26억원에 이르고 있다. 전남 해남에서도 10억원이 넘는 횡령액이 발각됐다. 복지예산 횡령은 규모와 차이만 있을 뿐 전국 곳곳에서 적발됐다. 서울 용산구, 경기 안산, 충남 아산, 강원 춘천 등지에서 '나쁜 공무원'들이 숨어 있었다. 이들에게는 복지예산이 한마디로 '눈먼 돈'이었다.

횡령 수법도 다양하다. 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로 올리거나 지급비를 부풀렸다. 또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좌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작하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이미 만들어 놓은 본인명의 계좌나 가족명의 차명계좌로 이체됐다. 그것도 수년에 걸쳐 꼬박꼬박 빼갔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고급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샀다. 호화 여행

을 다니는가 하면 아파트와 땅을 구입하기도 했다.

제주공직자 청렴의지 기대

뒤늦게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다. 이제야 구멍 난 복지시스템 보수 공사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개선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가 하면 복지예산 지급체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횡령액의 2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예산 횡령사건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시기에 제주에서도 특별감사가 시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지난 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롯한 43개 읍·면·동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횡령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천만다행이다. 일부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지급액이 누락되거나 추가지급,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는 정도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도내에서 공직자 비리가 잇따르면서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다. 전국에서 청렴지수가 꼴찌의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이라도 공직자로서의 부끄러운 일을 끊고 '청렴제주특별도'를 만들어 내는 개개인의 확고한 '청렴의지'가 있기를 기대한다.

기고

정혁이의 이야기 1(유년기)

본지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운 부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부터 4회에 걸쳐 발달장애 아들의 성장기와 함께 한 김선옥씨의 이야기를 전제합니다.

25년 전이었다. 우리 부부에게 너무 예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데 그 예쁜 아기는 태어나서부터 울기만 하였다. 첫 아이여서 나는 '내가 아이를 잘못해서 울리는구나' 생각을 했다. 그러나 돌이 지나도 울기는 여전했다. 잠을 자도 1시간 정도였고 깨어나면 다시 울었다.

먹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우유 한 통을 먹이려면 포대기로 아이를 앞으로 업고 동네를 몇 바퀴 돌아야 겨우 해결이 되었다. 아기가 굶어 죽을까봐 먹여야겠다는 일념으로 별별 간식을 다 준비했지만 아이는 먹는 것에도, 다른 것들에도 관심이 없었다. 입을 움직여 씹는 것조차 하지 않아 편식을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면 될 거야' 절망 속 희망 잃지 않아

아이가 자라서 무언가 아이에게 가르치려 해도 전혀 따르지 않았다. 그것도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말도 하지 않았고, 혼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놀고,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 고집은 유난히 세서 마음대로 안 되면 누워서 뒹굴고, 최소한의 음식물도 먹지 않았다.

4살이 되면서 놀이방에 갔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선생님으로부터 상담요청이 들어 왔다. 단체 생활에 대한 흥미가 전혀 없고 다른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의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누워서 뒹구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했다.

바로 병원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았다. 요즘은 발달장애라고 하지만 그때는 자폐아라는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자폐아라는 병이 힘들기는 하여도 열심히 치료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폐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나는 그제야 책을 통해 어렵듯이 그 병에 대해 접하기 시작했다.

혼자 자기의 세상에서만 사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무엇 하나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양발신기, 신발신기, 옷입기, 양치하기, 손가락질하기 등 자라면서 저절로 익혀지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겨우 두 시간,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 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암담하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면 될 거야, 언젠가는 다른 아이들처럼 잘 해낼 거야'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고 저녁이 되어 돌아보면 오늘도 해낸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 다시 벽과 같은 아이와 치료를 시작했다.

기고

'제주사회복지의 나비효과' 를 기대하며



이 명 자

초등학생 복지교육강사

사회복지에 대한 막연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공부를 하던 차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교육'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를 배우고 있는 학생에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로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약간 두려운 마음도 앞섰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이나마 변화하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두려움은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변했다.

'초등학생 복지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되었다.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사회복지'의 의미조차 싫지만 해야 하는 활동 수준의 의무적인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는 요즘 사회환경에 적응하고 가치관과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아동기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의미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더욱 절실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난해 상반기 삼양·화북지역 3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서귀포시지역 초등학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상 학교가 10개 학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

'초등학생 복지교육'의 중요성과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싹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또한 초등학생 복지교육 강사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초등학생 복지교육'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흔들림 없는 복지기반을 갖추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의 확충과 전문강사 양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지교육이 갖는 가치와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초등학생 복지교육'이라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시작되었다. 오늘날 뿔뿔뿔뿔한 눈빛으로 우리 이웃에 대해 얘기하고 생각을 나누는 우리 아이들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우리가 바라던 제주사회복지의 나비효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현실화 시급”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3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지는 정무성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3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무성 원장 '종사자 열악한 근무환경...' 발제 공무원에 준하는 다양한 상여금 고려 필요

정무성 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급여 현실화 등 처우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급여와 수당의 적정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급여 및 수당은 다른 직종과 대비해 분석했을 때, 그 수준이 표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인상은 사회복지인력의 근무환경의 개선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과제임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는 수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수당 및 시간외 수당 등의 확대는 물론 공무원에 준하는 다양한 상여금이 고려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종사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비 지원이 요구된다. 대인 서비스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며, 이는 공신력이 있는 교육 및 자격증 제도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회복지인력들이 대학 및 대학원 진학, 기타 전문가 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자발적 노력에 대해 교육수당 등과 같은 항목의 신설을 통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노무관리 지도점검 강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해 시설 운영과정상

의 위법행위 발생 소지를 근본적으로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시설운영을 위한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모성보호정책 확립

사회 전반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어느 분야보다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여성인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동료에 대한 부담, 시설의 관행, 복직에의 두려움 등 시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및 동료직원들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창출해야 한다.

▲비정규직 대책 마련

최근 사회복지시설에도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조직도 다양한 욕구에 따라 사회복지인력을 다양하게 구성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인력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인력의 고용의 주된 이유로는 인건비 절감이나 고용유연성, 외부자원의 활용, 업무과중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다양화되는 시설의 환경과 인력의 풀(pool)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운영규정과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법령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즉, 시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시간제직이라는 이유로 인해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열등처우 금지의 원칙과 시간제 근로자가 받는 보수, 연금, 훈련, 휴가, 부가급여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는 비례원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 예측해 사회복지인력의 수급 정책 및 분야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민간·정부의 협의기구로서 사회복지인력운용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인력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정부의 주무 부서를 비롯해 사회복지사협회, 학계, 사회복지현장을 아우르는 구성으로서, 관련자

노무관리 지도점검 강화로 위법행위 소지 불식 복지수요 맞는 적정 공급규모 · 방안 마련해야

칙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교대제근무의 정례화

교대제근무인력의 경우 상근제와 2조 격일제의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공연하게 근로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행태이다.

이제 대체인력 부족의 문제는 더 이상 변명거리가 되지 않으며, 교대제근무인력의 과로 및 피로누적으로 인한 업무효율에 있어서의 손실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간호사의 경우 4조 3교대의 형태를 명확하게 갖추고 있어, 1일 8시간 근무형태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교대제근무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근무시간의 정례화는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할 부분이다.

▲사회복지인력 수급 · 운용 제도 정비

격제도 및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인력활용실태 점검, 수요·공급 분석 및 예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또 인력의 수요와 공급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실천현장, 특히 사회복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시설종별, 직종별 직무분석의 정기적 실시가 요청된다.

복지수요 예측은 사회복지인력 수급정책을 세우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이를 위해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장애발생의 증가, 실업자수 증가 등 복지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엄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인력의 공급실태도 면밀히 분석해 복지수요에 맞게 적정한 공급 규모 및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토론회 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Your Choice
The Best

DSINFOtech
DAESUNG INFORMATION TECHNOLOGY

미래를 이끌어가는 제주 IT 전문기업 (주)대성정보기술



서버 · 스토리지 보안 |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 홈페이지 구축
N/W장비 개발 | 정보통신공사 | OA

(주)대성정보기술 | 주문 및 서비스 상담 064-747-3244

InfoGate INN BIZ ISO9001:2000 신기술벤처기업



◎ 캐논복사기 판매 지정점
◎ HP 지정점

◎ 2008 제주경제대상 종합대상
◎ InforGate™ 인증(특허인증, GS인증)